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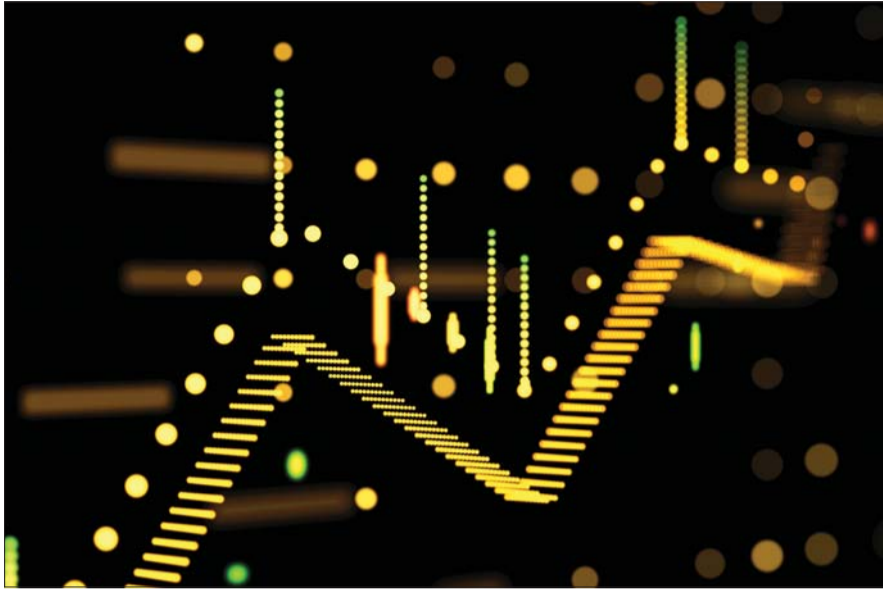
흥국생명 콜옵션 연기... 시장 출렁, 보험사 조기상환 '불똥'

한화생명·KDB생명 조기상환 앞뒤 투심 위축... 발행여건 악화 불가피 시장 약세 지속엔 자금조달 우려 ↑

흥국생명이 지난 2017년 발행한 5억 달러(당시 한화5571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콜옵션)을 연기하면서 자칫 채권시장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을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이 간 채권투자에 대한 신뢰회복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한화생명과 KDB생명도 각각 내년 4월과 5월 조기상환 시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채권시장 약세가 이어질 경우 보험사의 자금조달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채권 중도상환 연기... 도미노 우려

3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최근 흥국생명은 오는 9일로 예정된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시장 금리 상승(채권값 하락)과 채권시장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중도상환을 위해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자금조달에 나섰지만 수요예측에 사실상 실패(미매각)했다. 채권을 사졌



채권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보험사의 자금조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유토이미지

다는 기관이 없었다는 의미다. 결국 만기가 다가온 콜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이 미행사된 것은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이다.

내년 4월과 5월에 예정된 한화생명과 KDB생명의 조기상환 시기 도래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화생명은 2018년 4월 외화 신종자본증권 10억달러를 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조기상환 시기가 도래한 상황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올 3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내년 4월 만기에 콜옵션을 행사해 상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DB생명은 한화생명보다 한 달 뒤인 2018년 5월에 2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내년 5월 조기상환 시기 도래를 앞뒀다.

KDB생명 관계자는 "내년 5월 신종자본증권 2160억원(약 2억달러) 규모의 콜옵션 행사 사안이 있으나 아직 시간

이 있는 관계로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주주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본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시기,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에선 생보사의 현금 유동성이 떨어진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보험사들은 2조원에 달하는 채권을 팔아치웠다. 생보사의 수입보험료가 급감한 상황에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채권투자 심리 위축 불가피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업권을 불러 채권을 매각하는 행위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지켜봐 달라는 얘기를 했다"라며 "생보사들의 수입보험료든, 원수보험료든 성장을 조금씩 하는데 지금은 수입보험료가 급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액 관련된 시장 이슈가 없고, 2010년 초반에 판매했던 저축성 보험을 보면 10년이 지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근데 저축은행의 금리도 7~8%대에 달하면서 저축성보험 고객을 뺏기고 있다"며 "현금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경화가 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레고랜드 이슈와 기업들의 펀더멘털 저하 가능성 고조로 국내기업이 발행한 외화채권(KP) 신용 스프레드는 확대 기조였다"며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미실시로 투자 심리는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유승우 DB금융투자 연구원도 "암묵적인 조기상환 책임에 대한 금기가 깨진 만큼 당분간 투자심리는 악화될 수 있다"라며 "이번 사례는 금융시장이 경색되어 차환발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조기상환이 어렵다는 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일 "그간 금융위·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고 부연했다. 시장의 우려에 대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시그널을 보낸 셈이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내년 고용시장 '암흑'... 취업자 10분의1 '뚝' 외교갈등이 호재로... 위안화 거래 급증

KDI 취업자수 평가·전망 보고서

올해 80만명→내년 8만명 전망 최근 고용시장이 이례적 호황 내년 인구 감소 영향 본격화

올해 80만명에 육박한 취업자 수가 내년에는 8만명 수준으로 10분의 1 가량 줄어들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최근 주요국의 통화긴축 움직임 등 대외 불확실성에 경제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인구감소로 내년에는 고용 한파가 올 것이라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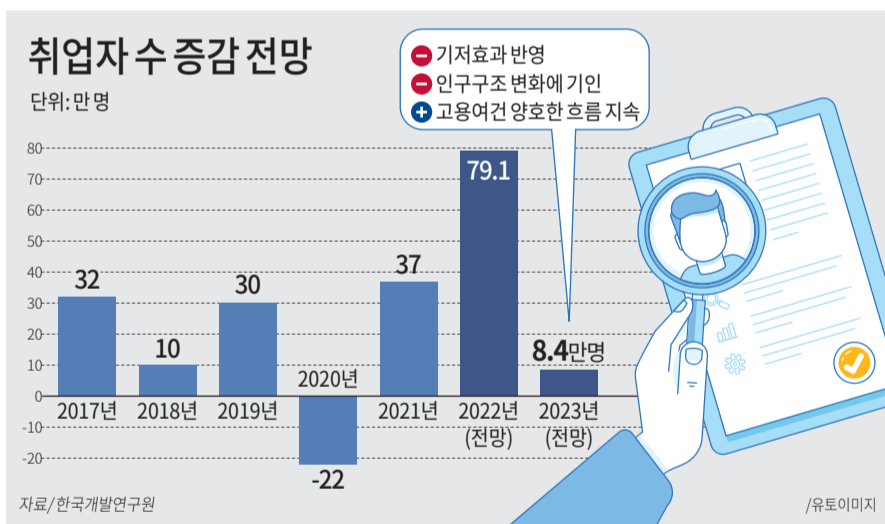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기상황과 대조적인 고용 호황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3일 국책연구기관 KDI는 보고서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을 통해 "과거 경제위기와 비교하더라도 최근의 고용 회복세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올해 1~2월 전년 대비 100만명 넘는 증가 폭을 보였고, 3~8월 80만명대를 유지하다 9월 들어 70만7000명으로 상승 폭이 약간 꺾였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시장의 이례적 호황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은 아니다"라며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기 상황과 괴리된 견고한 노동시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의 4차례 기준금리 인상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 움직임, 중국 경기의 부진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과 달리 최근 노동시장은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은 낮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자리 감소로 실업률이 치솟았던 과거 사례와는 대조적이다.

KDI는 최근 고용이 증가한 주된 요인으로 2019~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었던 때와 비교한 거저효과를 꼽았다. 또,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비대면과 정보기술(IT) 등 디지털 분야, 배달과 돌봄 등의 노동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 확대는 코로나19 과정에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보건 위기가 야기한 구조적 변화와 관련이 깊은 업종"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내년부터 경기 침체 속 고용 한파가 불어닥친다는 점이다.

KDI는 올해 79만1000명(잠점 전망치)인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내년 8만

4000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고, 인구 감소도 가팔라지면서 '성장 없는 고용'도 막을 내릴 것이라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가 내년 취업자 수가 1만8000명 감소시키는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 수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노동력 감소가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여성, 젊은 고령층, 외국인 등 인력풀 활용도를 높이고, 출산율 제고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노동공급의 양적인 개선과 함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차이나 뉴스&리포트

위안화, 세계 5위 통화로 올라 서방, 러 제재에 위안화 거래 ↑

중국 위안화가 호주나 캐나다, 스위스를 제치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로 올라섰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위안화에는 오히려 호재가 됐고, 무역 거래에서도 위안화의 사용이 눈에 띄게 늘었다.

3일 차이나신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이 실시한 세계 외환 상품시장 조사에서 중국 위안화의 거래 비중은 7%로 달러화와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에 이어 5위에 올랐다. 비중 4.3%로 8위를 기록했던 3년 전과 비교하면 3단계나 뛰었다.

BIS는 3년마다 각국 중앙은행과 글로벌 외환 및 장외 파생상품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한다.

미국 달러화가 비중 90%로 절대적인 1위 지위를 공고히 했고, 유로화와 엔화 등의 비중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3대 통화의 자리를 유지했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국제화에 시동을 건 것은 지난 2009년이다. 10여년간 지지부진하던 국제화에 힘이 실린 것은 역설적이게도 미중 무역 분쟁이었다. 미국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위안화를 배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은 위안화 결제 비중을 높이는 데 힘썼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2022년 위안화 국제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무역에서 결제된 위안화 규모는 36조6100억위안이다. 전년 대비 29%나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위안화 국제 결제액은 20조32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늘었다. 이대로라면 올해 국제 결제액은 다시 한 번 최고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보험사 알리안츠트레이드(Allianz Trade)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무역에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은 지난 2020년 초 20% 미만에서 올해 8월 기준 약 30%로 뛰었다. 여전히 40% 이상이 달러로 거래됐지만 위안화 거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호주뉴질랜드은행 레이먼드용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미래 환율 추정 등 다양한 이유로 무역 결제에 위안화를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에서의 위안화 거래가 크게 늘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등 서방 진영이 달러 거래에 제한을 가하면서다.

중국과 러시아가 천연가스 판매 대금을 달러가 아닌 위안화 결제키로 하면서 위안화 거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영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와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스프롬은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결제통화로 위안화 50%, 루블화 50%에 합의했다.

스탠다드차타드 웰빙리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무역 시장에서 위안화의 결제가 절대적으로 분명하게 늘었다"며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상황은 물론 대만과 기술패권 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 등 고조 등 통화 다변화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